



전현직 도의원·전직 시장 한판 대결

강성휘·전경선 출마 채바…박홍률·김종식도 도전

목포시장

현직 부재 상태인 전남 목포시장 선거판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출마가 거론되는 주요 인물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박홍률 전 목포시장,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강성휘



김종식



박홍률



전경선

장, 이호균 목포과학대학교 총장, 장복성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전경선 전남도의원 등이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두 전직 시장의 '리턴매치' 가능성이다.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은 박홍률 전 시장은 파선거권 제한이 없어 출마가 가능하다. 민선 6기와 8기 시장을 이끈 그는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성과를 대표 업적으로 꼽으며 "마지막 출마라는 각오로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57% 득표율을 기록한 경험 역시 강점이다.

김종식 전 시장은 완도군수 3선, 광주시 경제부시장, 민선 7기 목포시장 등 30년 가까운 행정 경력을 내세운다. 관광거점도시·문화도시 지정, 친환경건설박람회스터 조성, 한국섬진흥원 유치 등 굵직한 사업 성과를 재조명하며 "행정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다시 목포를 정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재도전에 나섰다. 두 전직 시장은 과거 선거에서 한 차례씩 승부를 주고받은 라이벌이어서 이번 맞대결 성사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전경선 전남도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도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며 판세를 다변화하고 있다. 전경선 의원은 목포에서

초·중·고를 모두 마친 토박이 출신으로, 시의원과 도의원을 거치며 '현장형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의정 활동 내내 골목 구석구석을 누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시민 목소리에 응답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강성휘 전 도의원은 3선 시의원과 재선 도의원 경력에 더해 박지연 의원 비서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거친 정책통이다. 민주당 경선 경험과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으로서의 행정 경험까지 두루 갖춘 그는 "통합과 실용의 리더십으로 준비된 후보"를 자임한다.

이호균 목포과학대학교 총장도 출마 채비를 굳혔다.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의장을 역임하며 행정 경험을 쌓은 그는 무안반도 통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장복성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은 6선 시의원이라는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목포·신안 통합 추진을 내걸었다. 언론인 출신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은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방송 활동과 지역 행보를 통해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린다. 중앙 정치권과도 활발히 교류하고 있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여수시장 '연임 불가' 전통 깨질까

정기명 재선 도전…명창환·이광일·강문성 등 도전

여수시장

여수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단 한 차례도 연임 시장을 배출하지 못한 특수한 정치 지형을 안고 있다. 정기명 현 시장은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명창환 전남도행정부지사, 강문성 전남도의원,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 김유화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서영학 여수기분사회 상임대표,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이용주 전 국회의원,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여수시 고문변호사 17년, 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11년을 맡으며 법률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무난히 당선된 뒤, 민선 8기 시정을 이끌고 있다.

최근 등판을 공식화한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도 강력한 변수다. 고층 출신이지만 여수에서 초임 사무관 생활을 시작했고, 모친이 여수에 거주하며 여수 시민의 상당수가 고층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역적 기반도 있다.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소통형 리더십이 강점으로 꼽히며, 중앙·지방을 아우른 경험을 바탕으로 산단 구조 전환과 지역경제 회복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언론인 출신 3선 도의원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경제관광토목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무와 예산 경험을 쌓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 동북아물류위원



정기명



강문성



명창환



이광일

장으로 활동하며 해양물류 분야에 전문성을 축적했다. 강문성 전남도 의원은 재선 도의원으로 기획행정위원장, 여수 10·19사건 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정 경험을 쌓았다.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은 6선 의원으로 두 차례 의장을 지낸 다선 정치인이다. 오랜 의정활동과 민주당 전남도 상무위원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두터운 기반을 갖췄다. 김유화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 최초의 여성 이사장으로, 민선 5·6기 시의원 당시 지역 최다득표 기록을 남겼다.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개원 이래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 3선 의원이자 환경복지위원장·COP특위 활동 등 풍부한 의정 경험을 보유했다. 서영학 여수기분사회 상임대표는 청와대 행정관, 여성가족부 과장 등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모두 경험했다. 이용주 전 국회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국민 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뒤, 청문회 활약으로 전국적 인지도를 쌓았다. 민주당 복당 이후에도 지역 내 인지도와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경제계 인사로는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거론된다. 산단 기업을 대변해온 만큼, 산업계와 노동 현장의 표심을 얼마나 끌어올지가 관건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무소속 현직 맞서 민주 후보군 도전장

노관규 시장, 징검다리 4선 관심…민주, 치열한 경선 예고

순천시장

순천시장 선거는 무소속으로 시정을 이끌고 있는 노관규 시장이 징검다리 4선 고지를 노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이 다수 포진해 경선부터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진보당과 신생 정당까지 가세할 경우 다자 구도가 형성돼 예측불허의 판세가 펼쳐진다.

노 시장에 맞서는 후보군은 서동욱 전반기 전남도의회 의장, 손훈모 변호사, 오하근 전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 이성수 진보당전남도당위원장, 허석 전 순천시장 등이 있다.

현역인 노관규 시장은 민선 4·5·8기를 거치며 세 차례 순천을 이끌었다. 순천만세계정원박람회를 기획했고, 지난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관광도시 이미지를 강화했다. 결단력과 추진력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무소속이라는 한계가 여전히 뚜렷하다. 민주당 조직력이 굳건한 지역에서 네 번째 당선을 위해서는 당내 경선 승자와의 정면 승부가 불가피하다.

민주당 경선은 다자 경쟁 양상이다. 서동욱 전 전남도의회 의장은 3선 도의원으로 서갑원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순천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지역 정치에 뿌리를 내렸고, 도정과 의정 경험이 풍부하다. 인자한 성품과 포용력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민주당 후보군 가운데 탄탄한 조직 기반을 갖춘 인물로 꼽힌다.



노관규



서동욱



손훈모



허석

손훈모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가 낙마했지만,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왔다. 입차인 소송 등 서민 문제를 대변해온 변호사로 알려졌고, 청렴성과 소통 능력을 무기로 세 확장에 나서고 있다. 지역 현안을 꿰뚫는 생활밀착형 행보가 강점이다.

오하근 전 전남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본선에 나왔으나 노관규 시장에게 석패했다. 기업 경영 경험을 갖춘 실물경제 전문가로, 풍부한 의정 활동과 예산 전문성을 무기로 와신상담의 각오로 재기를 준비하고 있다.

허석 전 순천시장은 민선 7기 시장을 지낸 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선에서 탈락했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으며, 4년간의 시장 경험을 토대로 재도전을 모색 중이다. 민주당적 리더십과 중앙당 네트워크가 강점으로 평가된다.

진보당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장도 변수다. 지난 총선에서 2위를 기록하며 지역에서 주목을 받았고, 노동 현장과 지역 민생 현안을 꾸준히 챙겨왔다. 출마가 확정될 경우, 진보 진영 표심을 결집해 본선 구도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 조국혁신당도 후보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윤병태 재선 가도…당내 경선 촉각

이재태 도의원·김덕수 국무총리 비서관 등 경쟁 치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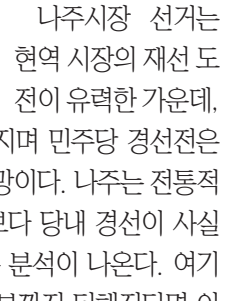
나주시장

나주시장 선거는 현역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도전자들의 출마 움직임도 뚜렷해지며 민주당 경선전은 일찌감치 치열한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나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제3지대 정당과 야권의 참여 여부까지 더해진다면 이번 선거는 복잡한 다자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윤병태 현 시장이다. 윤 시장은 기획재정부와 전남도 정부부지사 경험을 거쳐 2022년 민선 8기 나주시장에 당선됐다. 취임 이후 나주를 미래 성장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며 '영산강 르네상스'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빛가람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계하는 정주환경 개선, 탄소중립 기반 구축, 500만 관광역 유치 목표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왔다. 윤 시장은 안정적 행정 경험과 중앙 인맥을 바탕으로 나주 발전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서 이재태 전남도의원도 차기 주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역 언론인 출신인 그는 나주시 비서팀장과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지방과 중앙 정치 모두를 경험했다. 얼마전까지 전남도의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집행부와 도민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고, 주요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며 존재감을 키웠다. 이 의원은 활발한 의정 활동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김덕수 전 국무총리실 정부기획비서관도 출마 준비를 이어가



윤병태

김덕수

이재태

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오랜 기간 국회와 정부에서 정책 보좌와 국정 운영을 경험하며 행정 능력을 쌓았다.

특히 국무총리실 재직 시절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주요 현안을 중앙 정부 의제로 이끌어내며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중앙 행정 경험과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나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이밖에도 활광민 나주시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자전타전 꾸준히 거론되고 있으나 정작 본인은 한발짝 물러선 상황이다. 민주당 외에도 제3지대와 진보정당의 움직임이 변수로 꼽힌다. 만약 후보를 낼 경우 민주당 중심의 구도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역시 지역 내 기반 확대를 위해 후보군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구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 평가에서는 이번 선거가 단순히 인물 경쟁을 넘어 '어떤 비전과 정책이 실질적으로 나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를 두고 판가를 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무소속 성지서 민주당 후보간 경험

정인화, 복당 후 재선 도전…김태균, 강력 대항마 거론

광양시장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두터운 지역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광양은 지난 20여 년간 단 한 번도 민주당 소속 시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그동안 무소속 후보들이 잇따라 승리하며 '무소속의 성지'로 불려온 만큼 이번 선거는 정치적 관성을 끊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이변이 이어질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광양시장 선거는 정인화 현 시장을 비롯해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문양오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서동욱 전 국회의원, 서영배 광양시의원, 이종재 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장 등이 민주당 권역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진보

당에서는 백성호 광양시의원이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며, 국민의힘·조국혁신당 등도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어 다자구도의 불확실성이 크다. 정인화 시장은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광양 육물면 출신으로 행정고시 합격 후 전남도청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2022년 민선 8기 광양시장에 올랐다. 그는 취임 이후 민주당에 복당하며 당내 입지를 넓혔고, 산업·교통·문화 등 다방면에서 시장 성과를 내세우고 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역시 주목받는 강자다. 3선 도의원으로 도의회 부의장, 경제관광토목위원회 등을 역임하며 예산과 정책 전반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 도의회를 이끌며 쌓은 조직 장악력과 도청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경쟁력이다.



정인화



김태균



문양오



박성현

문양오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은 기초의원 출신으로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인물이다. 8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내며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혔고,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도 참여했다. 그는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를 듣는 정치를 강조하며 경선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해양물류 전문가다. 공사 재직 시절부터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에 깊이 관여했고,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 후보 직속 해양수산선박과 전남 선대위 공동대위원을 맡으며 중앙 정치 무대 경험도 쌓았다.

서동욱 전 국회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에서 지방법원과 교육자치 분야 의제를 다뤘다. 최근 총선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책 설계 능력을 무기로 고심 중이다. 서영배 시의원은 7·8·9대 3선 의원으로 시의회의장을 지냈다. 풍부한 의정 경험과 조직력을 강점으로 평가받으며, 출마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등판할 경우 정치 경륜을 앞세워 존재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이종재 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장은 공직 생활과 공무원노조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무기로 내세운다.

진보당 백성호 시의원은 6·7·8·9대 내리 4선에 성공한 최다선 의원이다. 노동 문제와 집행부 견제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왔으며, 만약 출마할 경우 민주당 중심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존재로 꼽힌다. 현재 출마 여부를 저울질 중이다. 이현규 기자